

##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협력 강화

###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협력 강화]

- UN 세계 기후 위험지수(the Global Climate Risk Index 2021) 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자연 재해로 인한 위험도가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나라이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1,500만에서 3,000만 명이 해안가에서 이주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음.
- 방글라데시는 기후변화로 선진국보다 불리한 위치에 처한 58개 국가로 이루어진 기후취약국 포럼(Climate Vulnerable Forum, CVF)의 주축국으로, 선진국에 탄소 배출량 감축 및 개발도상국들의 '탈탄소화'를 돕기로 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대응 정책 수립에 앞장서 왔음. 최근에는 영국 정부와 기후 행동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고, 앤서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과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외무장관 회담을 갖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가고 있음.
- 방글라데시 하산 마흐무드(Hasan Mahmud) 정보방송부 장관은 지난 5월 스웨덴 스톡홀름의 EU-인도-태평양 장관급 포럼에 참석함. 하산 박사는 녹색 기회와 글로벌 도전이라는 주제의 원탁 토론에 참여하여 방글라데시의 기후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기후 금융의 확보를 위한 협력을 촉구함.
- 스웨덴 기반 H&M 그룹과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수출업체협회(BGMEA)는 방글라데시의 순환적이고 기후 중립적인 의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동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 2023. 03. 14

#### 기후변화에 관한 방글라데시-영국 협정

방글라데시와 영국은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과 COP27의 성과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의 리더십 발휘와 기후 행동에 대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에 대한 협정을 체결함. 양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기 위해 과감하고 포괄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구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에 맞춰 계속해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저탄소 기술의 개발과 배포를 확대하기 위해 기후 금융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기후 재정 목표 달성에 공동으로 기여할 것에 합의함. 또한 공통 기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며 기후 행동에 관한 정기적인 공동 행사와 대화를 개최할 예정임.

자료: GOV.UK (gov.uk), Bangladesh-UK Accord on Climate Change, 2023-03-14

• 2023. 04. 11

#### 방글라데시-미국, 기후위기 대응 위해 공동노력

방글라데시 외무부는 앤서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AK 압둘 모멘(AK Abdul Momen) 방글라데시 외무장관 간의 회담에서 양국 관계와 기후 변화, 경제 파트너십 강화 등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방글라데시는 심각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UN의 글로벌 기후 위험 지수 2021에 따르면 기후 변화에 7번째로 취약한 국가임. 방글라데시 외무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방글라데시 국내총생산(GDP)의 1%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며, 2050년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방글라데시 해안 지역의 약 17%가 물에 잠기고 약 2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연구를 인용하여 언급함.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방글라데시와 미국 간의 관계가 지난 50년 동안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부터 보건 분야까지 다양한 부문에 걸쳐 크게 성장해왔다고 언급함.

자료: Anadolu Ajansı (aa.com.tr), US, Bangladesh eye joint efforts to deal with climate crisis, 2023-04-11

• 2023. 05. 15

#### 방글라데시 하산 마흐무드 정보방송부 장관, EU 인도-태평양 장관급 포럼 참석

방글라데시 하산 마흐무드(Hasan Mahmud) 정보방송부 장관은 지난 5월 스웨덴 스톡홀름의 EU-인도-태평양 장관급 포럼에서 열린 녹색 기회와 글로벌 도전이라는 주제의 원탁 토론에 참석하여 기후변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 환경전문가이기도 한 하산 박사는 방글라데시는 국제 협력을 통해 녹색 기술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저하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하산 박사는 방글라데시가 기후변화 손실 및 피해 기금을 조기 시작해 운영하기를 원하며, 선진국이 약속한 1,000억 달러의 기후 금융을 확보하기 위해 EU 및 기타 인도 태평양 국가와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임

자료: Dhaka Tribune (dhakatribune.com), Hasan: Climate change is biggest threat to sustainable development, 2023-05-15

• 2023. 06. 01

#### H&M 그룹-방글라데시, 의류 부문 순환성 촉진을 위한 MOU 체결

스웨덴 기반의 H&M 그룹과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수출업체협회(BGMEA)는 방글라데시의 순환적이고 기후 중립적인 의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동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방글라데시는 1982년 H&M 그룹과 방글라데시 공급업체가 처음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 주요 생산 국가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음. 이번 MOU에서 의류 산업을 순환 모델로 전환하고 방글라데시의 재생 에너지 시장 개발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 전력 구매 계약과 같은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모색되었음. 이에 대해 H&M 그룹의 CEO는 의류 업계에서 2040년까지 순제로 달성이라는 목표가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다며, 업계 전반의 환경 관련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료: JustStyle (just-style.com), H&M Group, Bangladesh sign MOU to drive garment sector circularity, 2023-06-01

## 이슈 세부 정보

### 방글라데시의 녹색 외교 정책

항목	주요 내용
<p><b>기후 위기 현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글라데시는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간주되며 극심한 재해 위험이 높은 국가 중 7위에 해당됨. 2021년 UN 세계 기후 위험 지수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해 심각한 인도주의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사상자는 11,450명에 달함</li> <li>- 방글라데시는 기후 변화로 인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37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185건의 기상 이변을 겪었음</li> <li>- 악화되는 기후에 대처하기 위해 활발한 녹색 파트너십 구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을 도입함. 녹색 파트너십은 역량 개발, 기술 개발, 협력을 촉진하여 파트너 국가 간 모범 사례와 기술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함</li> </ul>
<p><b>세부 내용</b></p>	<p><b>1)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b></p> <p><b>△ 방글라데시와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덴마크 정부는 기후 재앙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심각한 불공평함을 인식하고, 기후 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게 1,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함</li> <li>- 최근 CIP(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와 COP(Copenhagen Offshore Partners)라는 두 덴마크 기업이 500메가와트의 해상 풍력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에 13억 달러 규모의 투자 제안서를 제출함</li> <li>- 덴마크는 풍력 발전 분야의 선진국이며 2022년 전체 전력 소비의 53.6%가 풍력 발전에서 비롯됨</li> <li>- 반면 방글라데시는 화석 연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함. 방글라데시는 2008년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전력의 1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재생에너지원에서 나오는 전력은 겨우 3%에 불과함</li> </ul> <p><b>△ 델타 경영(Delta Management)을 위해 네덜란드와 제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글라데시와 네덜란드는 유사한 지리적, 지형적 특징을 공유함. 양국 모두 상대적으로 넓은 해안선을 갖고 있어 해수면 상승 위험에 직면해 있음</li> <li>- 방글라데시 정부는 물 관리 컨설팅 회사 Dutch Water Sector, 네덜란드 통합 금융 메커니즘과 협력하여 방글라데시 델타 플랜(Bangladesh Delta Plan, BDP) 2100을 비준</li> <li>- BDP는 방글라데시의 기후변화와 재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식량 안보를 보장하며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100년에 걸친 장기 계획이 포함됨</li> <li>- 네덜란드는 BDP를 통하여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토지 매립, 홍수 방어, 하천 준설 등의 분야에서 방글라데시와 기술 협력에 참여함. 네덜란드는 BDP 이행을 위해 890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li> </ul> <p><b>2) 국제기구와의 연결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글라데시는 녹색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ing for Green Growth), 글로벌 목표(Global Goals) 2030(P4G)과 같은 다양한 비국가 포럼에 참여</li> <li>- P4G는 에너지, 식량, 농업,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도시 등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는 여러 국가에서 출범한 플랫폼임</li> <li>- 4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방글라데시의 녹색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12억 5천만 달러를 지원</li> <li>- UN 산업개발기구(UNIDO)와 파트너십을 맺고 해양 쓰레기 예방과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사용을 추진함</li> </ul> <p><b>3) 남남 녹색 파트너십(South-South Green Partnerships) 강화의 필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글라데시는 녹색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남반구 국가들과의 남남 파트너십을 강조</li> <li>- 방글라데시는 무지브 기후변영계획(MCPP)에 명시된 녹색 미래를 구상하고 상세한 로드맵을 발표함. 특히 CVF(기후취약국 포럼)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 문제를 주도하고 있음. 이와 같이 유사한 기후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과 유대와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방글라데시의 기후 위기 극복 전략임</li> </ul>

자료: southasianvoices.org

## 참고 문헌

---

### □ 참고 사이트

1. gov.uk
2. aa.com.tr
3. dhakatribune.com
4. just-style.com
5. southasianvoices.org